



판마당 영신 공연 모습.

/전통문화연구회 열수 제공

마당에서 만들고 놀고 즐기자

‘광주예술난장 굿판’ 31일부터 이틀간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

(사)전통문화연구회 열수가 주관하는 ‘광주예술난장 굿판’이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대촌전통문화커뮤니티센터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열한번째를 맞이하는 ‘광주예술난장 굿판’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에서 우수등급을 받는 등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공연예술축제다.

공연, 전시, 놀이, 참여 등 총체화된 민간주도 전통공연예술축제로 축제공간을 무대 중심에서 마당 중심으로 옮겨, 마당에서 관객이 공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굿물은 “배”로 정해졌다. 배는 문화를 싣고 들어오고, 문화를 싣고 나갔다. 또한 배가 들어오는 포구에서는 다양한 문화들이 만나고, 서로 섞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갔다. 이번 굿물은 광주예술난장 굿판이 그 포구가 돼 다양한 배의 의미를 되새기고, 만들고, 놀고, 즐기는 문화의 장을 만들고자 하는 의미가 담겼다.

공연은 신진마당, 굿마당, 판마당, 향구네마당 등 4개 마당으로 열린다. 신진마당은 전통의 다양한 매력을 살린 창작 작품들을 선보이는 젊은 예술가들의 마당으로 지역문화공동체반반협동조합, 라온, 동양고주파, 태무용단의 공연을 소극장에서 감상할 수 있다.

굿마당은 도심에서 보기 힘든 굿을 볼 수 있는 기회로 31일에는 오후 10시

부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독립운동가 김철 씨감곳’이 오춘자 지무와 함께 진행되며, 9월 1일에는 과거 조도어민들이 만선을 기원하는 고사와 어로과정, 만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재현하는 전라남도무형문화제 제40호 조도맞배노래가 진행될 예정이다.

판마당은 마당형태의 무대에서 공연자와 관객들의 소통이 가능했던 옛 전통 판의 특징을 살려 각 지역의 다양한 예술가와 공연예술을 만나볼 수 있다. 판마당은 우리 굿의 형태인 ‘영신-오신-송신’으로 구성됐다. 오는 31일 영신에서 광주연합풍물패의 배맞이굿을 시작으로 송신에 노선택과 소울소스 meets 김윤희, 연희집단 The 광대, 댄스프로젝트 에게로, 타악그룹 열수의 공연을, 9월 1일에는 서커스창작집단

봉앤줄, 타고, 타악그룹 열수, 나인티나인아트컴퍼니의 공연을 선보이며 폐막식인 송신으로 마무리 된다.

향구네마당은 굿에 쓰이는 굿물을 함께(향구네) 만드는 것으로 배를 만들고, 배를 타고 세계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광주예술난장 굿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되었으며, 지역 내의 주민단체들이 직접 운영하는 먹거리 등을 맛볼 수 있다.

광주예술난장 굿판은 1일 1만원의 입장료가 있으며, 입장권으로 다양한 체험과 전시,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세계민속놀이, 신진·판마당에서 펼쳐지는 10여개 팀의 공연, 도심에서 보기 힘든 씨감곳과 배맞이굿 등을 모두 누릴 수 있다.

문의 062-676-3844. /이보람 기자



향구네마당 전시.

‘광주성악콩쿠르’ 1위에 이해원

입상자 8명 발표...23일 시상식·콘서트 진행

2019정음성악축제 ‘광주성악콩쿠르’에서 이해원(서울대학교 쥘)이 1위(광주시장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정음성 선생의 음악과 예술혼을 널리 알리고 실력 있는 차세대 성악가 발굴을 위해 진행된 이번 콩쿠르는 지난 17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광주성악콩쿠르 본선을 진행했다. 광주문화재단은 이날 1위 이해원 등 총 8명의 입상자를 발표했다.

본선 경연에서는 총 105명의 지원자 중 두 차례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14명의 본선 진출자들이 정음성 가곡을 시작으로 한국 가곡,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우수한 기량을 겨루기 성악가들의 콘서트를 방불케 하는 무대를 선보였다.

소프라노 이해원은 정음성 가곡 ‘화를 읊노라’, 한국가곡 ‘산유화’ 그리고

‘UNA VOCE POCO FA’ from Opera ‘IL BARBIERE DI SIVIGLIA’를 노래해 정경한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1위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2위 바리톤 정민성(연세대학교 쥘), 3위와 정음성가곡상에 테너 정현우(연세대학교 쥘), 우리가곡상 메조소프라노 정주연(한국예술종합학교 쥘), 반주사피아니스트 박수호(한국예술종합학교 쥘)가 수상의 기쁨을 누렸다. 광주·전남 소재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에게 주어지는 향토상과 고향상은 각각 소프라노 황지영(목포대학교 쥘)과 바리톤 박성근(연세대학교 쥘)이 수상했다.

2019 광주성악콩쿠르 시상식은 오는 23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성악콩쿠르’에서 1위의 영예를 차지한 이해원씨의 본선 경연.

소극장에서 진행되며 수상의 영예를 받은 입상자들의 무대를 다시 만나 볼 수 있는 콘서트도 열린다.

시상식 및 입상자 콘서트는 전석 사전 무료예약으로 관람 가능하다. 문의 062-670-7466. /이보람 기자

작가그룹 옥인콜렉티브 이정민·진시우 작가 별세

2009년 결성된 3인조 그룹

작가그룹 옥인콜렉티브로 활동한 이정민·진시우 작가 부부가 함께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미술계에 따르면 이정민·진시우 작가는 지난 16일 생을 마감했다.

옥인콜렉티브는 2009년 종로 옥인아트 철거를 계기로 이정민·진시우와 김희영 작가가 함께 형성한 작가 그룹이다.

이들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대면하는 문제를 공동체와 개인 관계를 중심으로 관찰하는 작업을 선보였다.

지난해 1월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작가상 최종 후보에 오를 정도로 역량을 인정받았으나, 내부적인 문제로 작년 말부터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상태였다.

이정민·진시우 작가는 “심신이 많이 지쳐 있지만,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기 위해 힘을 낸다”라고 시작되는 편지를 주변에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10년 가까이 옥인 활동으로 함께했던 모든 예술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주신 아낌없는 지원과 응원에 늦은 감사의 말씀을 남깁니다. 지난해 12월부터 불거진 옥인 내부 문제를 전해 들은 분들께 의도치 않은 고통을 나눠드려 죄송하다. 전체 운영을 맡아온 저희 방식이 큰 죄가 된다면 이렇게나마 책임을 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인성예절캠프에 참여한 어린이들이 반별 규칙을 의논하다가 폭소를 터뜨리고 있다.

“엄마·아빠, 예절전문가 됐어요”

인성교육원 연합, 여름 어린이인성예절캠프 성료

광주인성교육원이 주최한 ‘2019 여름 어린이인성예절캠프’에 광주전남지역 10여 곳의 인성교육원이 연합해 캠프를 마쳤다. 이번 캠프는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간 광주전남의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나주 흥흥골드스파&리조트에서 개최됐다.

어린이인성예절캠프는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광주전남지역 여러 인성교육원과 여러 곳의 지역아동센터 및 초등학교가 협업체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인성예절캠프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캠프에는 나눔인성교육원, 드림아이, 두리안인성교육원, 해바라기인성

교육원, 마인드솔루션트레이닝센터, 마음발달인성교육원, 코스모스인성교육원, 맑기인성교육원, 담빛인성교육원 등 10여 곳의 교육원과 탈무지지역아동센터, 모해지역아동센터, 대촌지역아동센터 등 15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했다.

배려, 감사 등의 기본인성 뿐만 아니라 생활예절, 공공의식, 사회성 등을 기르기 위해 다채롭고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선착순 모집된 400여 명의 학생들을 학년별로 편성해 ▲인성예절스케치 ▲생활예절교육 ▲예절생활 상황극 ▲골든벨 등 체험위주와 게임형식으로 진행됐다. /이연수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상쾌한 아침을 여는 신문!
독자에게 새롭고 정확한 뉴스!!
소신과 대안이 있는 정보!!!
따뜻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여론을 선도하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지역신문 발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역 현황

■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충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 월간국·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국: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dn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